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최 인 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0년대 이후 영상매체에 나타난
팜므파탈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2012

성신여자 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 특수분장 전공
조 연 경

1990년대 이후 영상매체에 나타난
팜프파탈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최 인 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 특수분장 전공

조 연 경

인 준 서

조연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논문개요

팜므파탈(femme fatale)은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독특한 성격상 특징적인 메이크업이 필요하다.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준다는 공통점과 파멸로 이끄는 다양한 형태는 극중 인물의 내면연기 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특징으로 묘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외적 특징이 어우러져 시청자에게 다가갔을 때 공감을 얻게 된다. 메이크업에서 팜므파탈 이미지 구현은 극이 진행되는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연기자의 특성과 극의 구성 특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팜므파탈 이미지의 변화 고찰은 메이크업 변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팜므파탈 캐릭터가 자주 표현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높은 시청률과 언론 및 인터넷, 기사, 표 매체에서 화제가 된 악녀형 팜므파탈 캐릭터를 선정하여 메이크업의 전반적인 패턴을 분석하였고, 영상매체인 드라마, 영화에서의 메이크업 영상과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메이크업 트렌드에 따로 팜므파탈 캐릭터의 메이크업 패턴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으로 I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필요성과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고, II장에서는 영상 메이크업의 개념, 특징을 정의하고 이에 영상매체에서 메이크업 할때 필요한 환경요소를 살펴보았다. 영상매체에서의 팜므파탈의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격별 팜므파탈 유형과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이 나타났던 악녀형 팜므파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첫째, 메이크업 경향에 따라 피부 톤, 눈썹, 눈, 입술의 모양, 라인, 색을 기본으로 함께 적용시켜 새롭게 악녀형 팜므파탈

메이크업이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영상매체에서 나타난 악녀형 팜므파탈 캐릭터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함께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모습에 따라 캐릭터도 변화하였는데, 이에 맞추어 악녀형 팜므파탈 캐릭터도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메이크업에서도 이 변화에 맞추어 성격 메이크업의 기본 톤로 성격적인 부분을 표현하면서, 골드, 핑크, 오렌지 색을 더해서 여성의 느낌을 고급스러움, 귀여움, 당당함, 발랄함등 다양하게 표현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영상매체의 현대물 드라마에서 악녀형 팜므파탈 메이크업 패턴은 자연스러운 성격 메이크업을 보여주고, 영화에서의 악녀형 팜므파탈 메이크업 패턴에서는 좀 더 다양한 색깔과 진한 색깔, 과감한 패턴으로 뚜렷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시대물인 사극에서는 1990년대에는 대부분 여성스러운 악녀형 팜므파탈 메이크업 이미지를 보여주었다면, 최근에는 당당하고 리더쉽 있고 강인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악녀형 팜므파탈 메이크업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메이크업은 시대와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극중 인물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 서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3
II . 본론	4
1. 영상 메이크업의 개념	4
2. 영상메이크업 특징	9
3. 영상매체에서의 환경요소	14
4. 영상매체에서의 팜므파탈과 성격유형	17
III . 1990년대 이후 영상매체에 나타난 대표 팜므파탈 메이크업 분석	24
1. 팜므파탈 캐릭터 선정기준	24
2. 1990년대 이후 영상매체에서 팜므파탈 캐릭터 대표작품	26
IV . 결론	53
참고문헌	58
ABSTRACT	60

표 목 차

<표 1> 악녀 주인공 드라마 시청률	25
<표 2> 장희빈의 메이크업 분석 : 정선경	32
<표 3> 청춘의 덫의 메이크업 분석 : 심은하	34
<표 4> 미스터 큐의 메이크업 분석 : 송윤아	36
<표 5> 이브의 모든 것의 메이크업 분석 : 김소연	39
<표 6> 친절한 금자씨의 메이크업 분석 : 이영애	41
<표 7> 인사동 스캔들의 메이크업 분석 : 엄정화	43
<표 8> 반짝반짝 빛나는의 메이크업 분석 : 이유리	46
<표 9> 계백의 메이크업 분석 : 오연수	48
<표 10> 1990년대 이후 영상매체에 나타난 대표 팜므파탈 캐릭터 메이크업 비교 분석	49

그림 목 차

<그림 1> 1993년 마몽드/밍크 브라운 : 1990년대 초반 유행 메이크업의 이영애	26
<그림 2> 1996년 태평양 인쇄광고 사이버 586밀레니엄 느낌의 메이크업의 김소연	27
<그림 3> 2003년 영화 싱글즈 : 내추럴 메이크업의 엄정화	29
<그림 4> 2009년 numero 12월호 스모키 메이크업의 송윤아	30
<그림 5> 1995년 SBS 드라마 장희빈의 정선경	31
<그림 6> 1995년 SBS 드라마 장희빈의 인경왕후 김씨역의 장혜숙	32
<그림 7> 1997년 SBS 드라마 청춘의 덫의 심은하	34
<그림 8> 1998년 SBS 드라마 미스터 큐의 송윤아	36
<그림 9> 2000년 MBC 이브의 모든 것의 김소연① : 짙은 메이크업한 경우	38
<그림 10> 2000년 MBC 이브의 모든 것의 김소연② : 옅은 메이크업한 경우	38
<그림 11> 2005년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41
<그림 12> 2009년 영화 인사동 스캔들의 엄정화 : 스모키 메이크업에 누드톤 립스틱을 한 경우, 스모키 메이크업에 레드톤 립스틱을 한 경우	43
<그림 13> 2011년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이유리	46
<그림 14> 2011년 MBC 드라마 계백의 오연수	48

1.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팜므파탈의 아름다움은 시대적 대표 인물로도 알 수 있듯이 관능적인 매력과 신비롭고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이브, 메두사, 마릴리 먼로, 장희빈까지 있다. 그녀들은 매력 또는 마력으로 남성을 종속시키거나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며,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성적 매력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어지게끔 한다. 팜므파탈의 걸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화려한 모습의 특징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상, 메이크업, 헤어등이 필요하다. 영상매체는 사람의 전체 부위 중 얼굴을 가장 많이 보여준다. 얼굴에서는 표정만으론 팜므파탈의 이미지를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메이크업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변신을 한다. 여배우들은 청순한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 터프한 이미지, 섹시한 이미지등 다양한 이미지 변신을 요한다. 악녀 캐릭터는 착한 주인공을 괴롭히고,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캐릭터로 과거에는 작품에서 조연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고,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아 조금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영상매체에서 악녀 캐릭터는 당당하고 현대 여성성을 표현하여, 남성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복수함으로써 여성들의 대리만족을 시켜줌으로써 사랑받고, 팜므파탈의 캐릭터가 당당히 주인공으로서 다양한 작품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시대를 반영하듯 현모양처이미지의 지고지순하고 순종적인 청순한 캐릭터가 사랑받았다면 지금은 팜므파탈 캐릭터가 더 사랑

받는다.

대중매체를 통해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패션등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여성들은 아름다운 여자스타들을 모방함으로써 그 스타와 같아지고 싶어한다. 따라서 메이크업 스타일을 따라하거나,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등을 따라한다.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영상매체인 드라마, 영화에서는 더욱 더 클로즈업된 얼굴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영상매체에 나타난 화려하고 섹시한 메이크업 이미지인 팜프파탈 이미지는 21세기 들어서 더욱 발전한 파티 문화와, 클럽 문화등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이미지요소이다. 여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메이크업을 통하여 크게 변신할 수 있다. 그렇기에 여성들에게는 관능적이고 신비로운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팜프파탈 메이크업 스타일 늘 관심의 대상인이다.

본 연구목적은 대중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매체를 통하여 시대에 따라 변하는 팜프파탈 메이크업스타일의 변화와 다양해진 팜프파탈 캐릭터가 메이크업 트렌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범위는 드라마에서는 시청률이 높고, 이슈가 되었던 캐릭터를 기반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영화 속에서는 드라마에서보다 좀 더 표현이 자유롭기 때문에 개성있는 메이크업 패턴 스타일을 선정하여 차이점을 연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아름다움인 팜프파탈 캐릭터의 메이크업 패턴을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영상매체 속에서 팜프파탈 캐릭터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1990년대 이후로 최근 2011년까지 알아보고 이해함으로써 대중매체 속에서 여성이 표

현하는 성격요소 중 하나인 팜므파탈 성격을 표현할 때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범위는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 중에 시각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대중화된 매체인 영상매체의 영상물인 드라마, 영화로 하였다. 1990년대 이후 2011년도인 현재까지 높은 시청률과 언론 및 인터넷, 기사, 매체에서 화제 된 캐릭터로 선정하여 메이크업의 전반적인 패턴을 분석하였다. 메이크업의 패턴의 기본요소인 베이스, 눈썹, 아이라인, 아이 섀도우, 볼터치, 립등의 컬러 및 형태의 모양을 분석하여 팜므파탈 메이크업도 시대적 메이크업 트렌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았다.

II. 본론

1. 영상 메이크업의 개념

영상 메이크업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광선의 굴절이나 반사에 의하여 물체의 상이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 비추어진 것을 말한다. 즉 사진과 영화 TV, 비디오, DVD 멀티미디어까지를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인간의 망막에 투영된 상을 말하며 이것을 비주얼워드(visual word)라고 한다.(신단주, 2005)

우리나라 영화의 기점은 1923년으로 일제의 강점기에 탄생하였고, 1950년대 이후 전쟁이 끝나면서 다양한 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무대연극이 시작되었고, 1960년대 들어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며 영상매체도 다양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 전성기를 맞으며 영화산업의 발달로 영상 메이크업도 더욱 발달되었다.

1960년대는 사회전반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고, 도시화로 발달되면서 대중매체도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대중매체 산업도 점차적으로 발달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메이크업이 서서히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영상매체에서의 배우들의 메이크업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흑백영상에서의 메이크업은 음영을 바탕으로 둔 메이크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에서도 얼굴의 명함과 선, 라인을 중점으로 선보였다. 이 시대의 메이크업 경향은 눈썹은 굵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1960년대 후반기부터 아이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 하였는데 얇은 그린, 블루 칼라계열의 색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서양 여인들의 아름다움의 특징인 큰 눈과 오뎅한 코, 창백한 피부 톤을 미의 기준으로 삼아 또렷하게 보이는 아이라인과 인조속눈썹을 사용하여서 눈 화장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립스틱

컬러도 레드에서 핑크, 브라운계열의 색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립 메이크업에서는 입술 선을 강조하여 두툼한 입술형태를 만들어주었다. 서구의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시대적으로 유명한 스타인 브리짓 바르도(Brigitte Bardot)의 아치형 눈썹, 두껍게 그린 입술 라인, 아이 메이크업을 강조하였고, 컬러로는 nude 톤과 브라운계열의 컬러를 사용하여 도통하면서 육감적이면서 관능적인 이미지를 보여줬다. 전 세계 십대들의 우상이었던 트루기는 강조된 눈, 조그만한 입과 장미빛 볼, 가짜 주근깨, 분 화장을 하지 않은 윤택한 피부 표현으로 인형메이크업스타일등의 유행시켰다.

메이크업 트렌드에 따라 팜프파탈 메이크업 패턴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팜프파탈 캐릭터는 외국에서 먼저 발달된 캐릭터이기에 할리우드의 영향을 받아 서양문화가 들어오는 시기로써 서구형 팜프파탈 캐릭터들을 많이 따라하던 시기이다.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는 서서히 메이크업의 성장하기 시작하여 기초적인 화장품의 분야에서부터 벗어나 색조 메이크업이 발달되었다. 피부톤은 핑크톤으로 두톤 정도 밝게 표현하여 서양미인들의 밝은 피부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었다. 아이 흘을 패턴으로 아이메이크업을 표현하였고, 아이새도우 컬러에서도 옐로우, 핑크, 블루, 그린등 선명한 컬러가 유행 하였다. 복고풍의 의복 유행과 더불어 같이 복고적인 느낌의 메이크업 스타일에 영향을 주었다. 아이라인으로는 크고 선명하게 눈을 강조하였다. 가늘고 짧은 눈썹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뽑아서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눈썹은 여성스럽고 부드럽게 표현되었다. 립은 핑크, 오렌지색을 주색으로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연극 분장에서 사용하는 것인 노즈 새도우를 하고, 볼터치를 강조하여 윤곽, 입체감을 표현하는데 표현하는 화장이 유행을 하였다. 아이

메이크업과 더불어 립 컬러의 조화를 더욱 이루기 위해 볼터치로 전체적인 융화시켜 토탈 메이크업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립글로스의 출현으로 립스틱 위에 립글로스를 덧 바르면서 좀더 윤기나고 도톰한 입술의 느낌을 볼 수 있었다.

1980년이 되면서 메이크업이 보편화가 되었고 그러면서 대중들에게도 일 반적이게 됐다. 칼라 TV의 등장으로 메이크업에서 색이 더욱 진해지고, 다 양해지면서 디스코의 유행으로 펄이 들어간 메이크업으로 더욱 화려해졌다. 전체적으로 배우들의 얼굴은 윤곽을 뚜렷하게 해주면서, 여자배우들의 메이 크업에서 색을 다양하게 표현 할 수 있는 눈 주위를 립 컬러의 메이크업이 더욱 강조되면서 화려하면서 진해지게 특징이다. 눈썹은 짙은 눈썹과 각진 눈썹이 유행하였고, 아이 섀도우의 주색으로는 브라운 계열, 립은 빨강, 주 황, 갈색등이다.

브룩셴즈(Brooke Shields | Brooke Christa Shields)의 영향으로 굵은 눈 썹이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으로 자신감 있고 활동적인 여성상이 각 방받기 시작하면서 색조 화장은 더욱 세련되고 다양해졌다. 특히 1980년대 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섹시코드에 맞추어 미니스커트와 핫팬츠의 영향으로 더욱 화려해지고 과감해졌다. 세계적으로 복고 섹슈얼 아이콘의 유행을 선 도하기 시작한 마돈나의 영향으로 아이홀과 눈꼬리를 올린 아이라인과 레드 립스틱이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다. 점차 인조 속눈썹의 부자연스러움은 사 라지고 아이 메이크업에서도 컬러를 과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점차 내추럴 풍으로 변하여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메이 크업 분위기가 안정되었다.

1990년대는 여성의 전문직 진출, 신세대 문화의 출현으로 도시적이고, 세

련된 여성의 이미지가 각방 받았다. 환경오염의 관심으로 자연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메이크업에서도 자연에 가까운 색들인 베이지, 브라운, 그린등이 주색으로 이루어졌으며, 피부 표현에서도 과장되고 진한 메이크업이 아닌 자연스럽고 맑은 피부를 표현하였고, 아치형 눈썹에 입술라인이 강조된 브라운계열의 립 컬러가 유행하였다. 1990년대 말의 메이크업으로는 밀레니엄의 시대적 변화에 맞서 광택나고 펄을 사용하였다. 또한 세기말의 영향으로 립에서도 어둡고 진한 색인 와인색의 레드색, 진한 브라운, 퍼플등 어두운 색조가 메이크업에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서 디지털 TV인 SDTV의 등장으로 1990년대보다는 좀 더 좋은 해상도와 화질도 좋아졌다. 메이크업은 점차 눈 주위를 강조하고, 입술을 강조하던 색조메이크업의 강세에서 좀더 맑고 투명한 피부를 표현하는 메이크업에 관심과 발달이 시작되었다. SDTV에서의 해상도와 선명도는 현재의 HDTV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은 뭉개져서 보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피부 표현도 두꺼웠지만 그래도 화면상으로는 매끄러워 보이기도 했다. 점차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메이크업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 눈썹도 1990년대처럼 가늘고 정리된 깔끔한 눈썹형태가 아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자연스럽게 살린 형태의 눈썹이 유행하였으며, 가볍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눈매 표현과 립에서도 매트한 립스틱에서 립글로스가 전환되었다. 세계적인 메이크업 트렌드에 따라 스모키 메이크업의 패턴이 우리나라에도 유행하게 되었는데, 청순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과 함께 팜프파탈처럼 관능적이고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알맞은 패턴인 스모키 메이크업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스모키 메이크업은 어두운 계열의 블랙, 그레이컬러가 주색으로 이뤄 깊은 눈매를 표현하면서 아이라인 형태는 짙은컬러를

사용하여 눈매를 그윽하게 표현하고 섹시미를 표현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전 까지만 해도 남자의 경우 기본 메이크업으로는 눈썹과 피부보정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움파탈의 유행으로 남자도 섹시함을 표현하는데 의상, 머리스타일, 메이크업등 다양한 요소로 표현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모키 메이크업을 통해서 섹시한 느낌을 더욱 표출해냈다. 메이크업은 여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 녀 구분 없이 영상매체에서 인물의 성격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모니터에서 보여 지는 특징은 육안과 유사할 정도로 영상에 표현되어 얼굴이 클로즈업 될 경우 피부의 모공과 점, 피부 결 까지 다 표현되므로, 영상에서 얼굴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사실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 속의 분장은 클로즈업 촬영기술이 도입되면서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영화사에서 메이크업이 처음 시도된 것은 에드윈 포터 감독의 홀담 패밀리 앤드 더 댐 도그(The Whole Dam Family and the Dam Dog, 1905). 출연진들을 한 가족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외모를 꾸민 것이 분장술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1920년대 초전색성 필름이 발명되면서 분장술은 일취월장 발전되는 계기를 맞았다. 즉 이 필름은 피사체의 세세한 색상을 담아냄으로써 출연진들에게 좀더 세심한 치장 요령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최초의 메이크업)

대형 화면에 나타나는 배우의 얼굴의 작은 특징까지도 놓치면 안 된다. 화면에서 배우의 얼굴이 확250배 확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의 점, 흉터, 뾰루기등도 확대되어 보여지므로 그렇기 때문에 TV에서의 메이크업 표현의 방법보다 더 정밀해야한다.

2000년대 이후로 미디어산업의 더 큰 발달로 디지털 관련 된 분야도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 영화와 TV분야에서의 기기들도 변화가 있었다. HDTV의 발달로 화면 비율, 영상촬영기법 등이 영화와 같아지면서 화면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같아지면서 메이크업 표현 기법도 같아지는 추세이다. 영상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여야 하며 보통 사람의 이해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메이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김봉천, 2001)

2. 영상메이크업 특징

1) 흑백 영상 메이크업 특징

흑백 영상이 처음 시초였기 때문에 화질에서나 색 표현에서 다소 질은 떨어졌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극분장처럼 조금은 인위적이고 두꺼운 메이크업 표현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색조가 표현될 수 없었기 때문에 명암을 강조하고 선과 라인으로 표현되는 메이크업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눈의 착시효과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TV 미술의 기준인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에 기준을 두고 흑과 백의 대비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다.(김용선, 2005)

2) 컬러 영상 메이크업 특징

흑백TV에서 컬러TV로 매체전환에 따라 영상도 컬러 영상으로 바뀌어졌다. 컬러 TV시대는 TV화면의 화질보다는 크기가 TV 품질 판단의 척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청자들이 영화나 컴퓨터의 CD, DVD등이 제공하는 고화질, 고

음질의 영상에 익숙해져 시청자들의 영상에 대한 기호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중문, 2004) 그래서 화면상으로 보이는 영상 메이크업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과거의 흑과 백의 대비표현에서와 달리 컬러 영상에서의 메이크업은 가장 화려하고 진해진 메이크업의 패턴을 볼 수 있다. 컬러TV의 등장과 함께 화장품도 발달 하였고, 흑백TV시대에서의 영상 메이크업은 기본 베이스와 눈썹이 바탕이었었지만, 컬러TV에서의 영상메이크업은 색조 화장품의 다양함도 엿 볼 수 있었다. 컬러 영상 메이크업에서는 아이 메이크업과 립, 볼터치의 컬러가 화려해지고 진해지고 주로 사용했던 색은 어두운 갈색과, 붉은색을 사용하였다. 컬러TV의 등장의 초기 엽음으로 화질 면에서 다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메이크업에서도 인물 그대로의 사실적인 메이크업보다는 두텁고 과장된 메이크업스타일 이었다.

3) SD(standard definition)TV 영상메이크업 특징

SDTV는 아날로그 TV보다 해상도가 2배정도 좋아져 화소수가 가로x세로로 720x480(약34만) 화소로 화질을 대체로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화소도 그만큼 더 향상되었다. 화소가 많을 수록 화질을 향상 시키는 정도이다. SD카메라에서 전파가 송출될 시 편집되는 과정에서 신호의 손실이 발생해 촬영했을 때 해상도보다는 뒤떨어진다. 낮은 해상도로 인해 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을 때도 약간 뭉게져서 보여서, TV의 모니터에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가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배경 중심의 화면 구성법 보다는 인물 중심의 화면 구성법이 즐겨 사용되고는 하였다.

SD영상 메이크업의 특징은 컬러 TV때보다는 조금 다운된 컬러감이지만 브

라운과, 블루, 레드, 핑크, 퍼플등 색감은 더욱 화려해졌고, 다양화되었다. 자연그대로의 얼굴을 살리는 면은 없었지만, 시대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진출이 시작된 시대로 커리우먼을 표현하는 듯한 샤프함과 세련된 느낌을 메이크업으로 표현되었다.

피부 톤은 무조건 하얗거나, 핑크 톤으로 밝게 했다. 본인 피부 톤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두터운 베이스 메이크업, 눈썹은 선명하면서도 가늘게, 아이 메이크업에서도 색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었다. 립 메이크업에서는 브라운 톤의 색이 주를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윤곽표현 중심의 메이크업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얼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을 사실적이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에서 색의 표현도 그라데이션과 음영을 사용하여 깊이감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실제로는 두텁게 느낄 수 있는 메이크업이었지만, SD영상으로는 전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진하고 두텁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4) HD(high definition) 영상메이크업 특징

HDTV의 화질에서 SDTV에 비해 더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1920x1080(약200만) 화소로 화소수도 SDTV에 비해 6배이상 증가되었고, SDTV보다 표준색이 좀 더 섬세하게 표현된다. 그리고 촬영했을 때 손실된 해상도가 다시 복원(decoding)할 수 있기 때문에 SDTV는 높은 해상도의 화질을 느낄 수 있다. 영상 비율에서도 16:9로 확대 됨에 따라 인물을 클로즈업에 맞추어 훨씬더 정교함과 섬세함한 메이크업이 필요하다. 또 배경을 바탕으로 한 장면에서는 영화와 같은 화질의 높은 해상도를 느낄 수

있다.

HD영상 메이크업의 특징으로는 높아진 해상도와 화면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색을 그대로 표현되기에 인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피부와 같은 느낌의 사실적이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해야한다. 또한 영화에서 표현된 인물표현된 느낌과 마찬가지로 땀구멍, 흉터, 모공까지 디테일한 피부표현에 신경을 써야한다.

HD모니터가 4:3에서 16:9로 화면의 비례 변화로 인하여 좌우에 여백이 생기고, 입체감이 뛰어나게 표현됨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얼굴이 가름해 보이게 되므로 볼이나 코 등을 너무 강하게 새도우를 윤곽을 살리는 것보다는 피부색과 유사한 칼라를 사용하여 가급적 새도우를 없게 하여야 한다. 또 분장을 할 때 피부색과 거의 같은 색의 베이스를 해야만 분장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차이점을 작게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카메라에 노출되는 피부의 모든 부분을 분장해야만 한다. HDTV는 구현해야 될 색상의 스펙트럼을 개선하여 대형 스크린에서도 피사체를 거의 원색에 가깝게 재현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HDTV의 분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장을 했지만 하지않은 듯 보여지는 분장방법 즉, 최대의 자연스러움을 요하는 분장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김봉천, 2004)

분장에 있어서도 보다 완벽한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분장시간은 기존의 패턴과 비교하여 세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드라마, 영화 촬영에 있어 사극이나 시대물, 특수분장에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하재영, 2000)

5) 스크린에서 영상메이크업 특징

영화도 이제는 HDTV 방송 특성과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TV중에서도 특히 그 해상도와 고밀도의 측면, 대형 디스플레이의 추세, 16:9의 이상적 화면 비율의 특징들은 영화의 필름과도 같다. 영화에서도 필름 촬영의 기법에서 디지털의 발달로 디지털 카메라로 TV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게 되었다. HDTV로 옮겨오면서 따로 TV메이크업과 영화메이크업을 구분짓지 않게 되었다. 대형 화면의 인물이나 배역의 얼굴이 훨씬 더 강조되었기 때문에 관객은 분장에 있어 불쾌감이나 거부 반응을 연극이나 TV 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며,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디테일하며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분장기법으로 발전하였다. 다만 스크린에서의 인물이 HDTV보다 좀 더 확대되어 표현된다. 영화에서는 장르가 더욱 다양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넓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도 더 뚜렷하고 다양하다. 그래서 메이크업의 표현력에서도 가족중심의 TV보다는 연령대의 제한이 있는 영화 쪽에서 더욱 다양하고 개성이 강하고 다양하다.

배우에게 머리색, 눈의 색, 피부색 등을 원래 색으로 부여함으로써 의복의 색을 선택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영화분장은 영화의 상과 함께 역할의 시대, 지역, 연령, 지위, 직업, 성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극장 요소이며 당신의 여성과 남성의 미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김선영, 이경선, 2006)

3. 영상매체에서의 환경요소

영상매체에서 메이크업을 할 때 다양한 환경요소에 따라 표현해야한다. 환경적 요소로는 조명, 방송사의 화질, HD방송과 모니터, 스크린등이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에서 메이크업이 어떻게 표현되는 지를 미리 인지 한 후 메이크업을 해야 잘 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명

영상제작에 있어서 인공적인 조명은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술적인 이유는 카메라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조명이 한 샷 내에서 중요한 부분에 시선을 집중토록 하거나 공간과 시간, 사건의 미묘한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Ralph Donald & Thomas Spann, 2000)

영상매체 촬영할때 실내촬영에서는 인물, 배경, 성격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주로 인공광을 사용하며 야외 촬영에서는 밤 촬영이 아닌 경우 거의 자연광을 반사판을 사용하여 사용한다.

클로즈업 시에는 배우의 얼굴이 화면에 확대되어 표현되는데 메이크업과 조명과의 조합이 배우의 성격표현과 화면 구성하는데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요한다. 조명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 화면에는 예상했던 피부 톤과 색감이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명이란 피사체에 빛을 조절하여 영상에 나타나는 현실과는 또 다른 세계를 어둠과 밝음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피사체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

2) 매체별 화질

TV(Television)의 화면인 모니터의 비율은 SDTV(Standard Definition TV)에서는 4:3비율, HDTV(High Definition TV)에서는 16:9비율로 나타난다. 전송 신호는 또한 SDTV는 아날로그, HDTV는 디지털이다.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사로는 KBS, MBC, SBS등으로 볼 수 있는데 KBS는 유익하고 공정한 이미지가 강하며 보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공영방송으로 약간 차가운 톤의 화질을 나타낸다. 그리고 MBC의 경우는 본연 자체의 색의 손실 없이 필름 자체의 화질로 가족적인 분위기가 기본 이미지로 편안한 색채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 SBS의 경우는 현대적이고 모던함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화려하고 조금은 밝은 느낌의 화질을 나타낸다. 각 방송사의 느낌에 맞게 메이크업의 톤을 고려해서 영상 메이크업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한다.

3) HDTV(High Definition TV)화질

HDTV의 특징은 아날로그 방식보다 5배 이상의 선명한 화질과 1920x1080개의 화소를 나타내고, 영화와 같은 16:9비율의 와이드 화면비율을 가진다.

SDTV(Standard Definition TV) 컬러 텔레비전은 과거 흑백 TV의 기록 방식에 색상 정보를 집어넣기 위해서 색상의 질을 희생시켜 만든 경우이다. 텔레비전 스크린이 작으면 이런 색상의 희생이 별로 눈에 띄지 않으나 대형 스크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색이 살아나지 못하고 선명도가 떨어진다. HDTV는 녹화와 재생 과정에서 그와 같은 색의 손실을 거의 거치지 않기 때문에 피사체를 화면에 원색에 가깝게 재현 할 수 있다.(김용선, 2005)

4) 스크린

서양에서 먼저 발전된 영화는 스크린의 크기와 규격도 서양에서 먼저 표준규격이 정해졌다. 영화가 발명된 초기에는 그 크기가 세로1에 대하여 가로 1.33이 표준이었으나 1950년대 이후에는 여러 가지 크기가 쓰였는데 시네마스코프(Cinema-Scope)는 1:2.35의 크기, 시네라마(cinerama)는 1:2의 크기, 비스타비전(Vista Vision)은 1:1.85의 크기이다. 이 세 가지 형식은 와이드 스크린의 일종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이 세가지 형식 뿐만아니라 스크린 크기 규격은 영화발전과 함께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스크린은 텔레비전의 수상기 화면, 영화관의 영사막을 말하며, 크기도 전혀 다르다. 텔레비전은 16형과 19형이 많은데, 이것은 스크린의 대각선의 길이가 16인치 또는 19인치임을 의미한다. 영화의 대형 스크린이라든지 시네라마(cinerama)등은 스크린의 크기가 텔레비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텔레비전 스크린의 크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제약 요인으로 이 크기가 화면의 구성이나 연출, 연기에 크게 관계된다. 텔레비전 화면의 비율은 가로 대 세로의 비가 4대3이다. 어떤 형이더라도 이 비율에는 변함이 없다. 텔레비전의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상은 525개의 주사선이다. 가정에서 수상하는 스크린에는 이보다 적은 수의 주사선으로 된다. 선명도가 낮은 화면은 주사선이 적은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 한편 기존 텔레비전보다 훨씬 선명한 화면을 제공해 주는 고품위텔레비전(HDTV)의 경우 주사선수는 1,125개이고 화면의 가로·세로비는 5대3이다.(네이버 지식사전, 스크린)

스크린은 “움직이는 그림이다” 라고 함축하여 말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기계들도 TV용이랑 영화용으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그 경

계선이 무너짐으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스크린에서는 인물이 TV화면보다 보다 더 확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배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될 경우 TV화면보다 더욱 섬세함과 정교함이 필요로 하며 더욱더 사실감 같은 인물 표현이 필요로 한다.

4. 영상매체에서의 팜므파탈과 성격유형

팜므파탈(femme fatale)은 ‘숙명적인 여자’, 혹은 ‘숙명의’, ‘운명의 여자’를 뜻하는 말이다. 19세기 유럽의 문학에서 사용을 시작하였고 주로 남성을 파멸적인 상황으로 이끄는 매력적인 여자의 뜻으로 쓰인다. 여성, 여자를 뜻하는 ‘femme’라는 명사와 ‘숙명적인’, ‘치명적인’, ‘필연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fatal’이라는 형용사가 합쳐진 용어로서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남자를 유혹에 빠뜨려 파멸로 몰아가는 여자 즉 ‘요부(seducitive women)’, 혹은 ‘악녀’를 표현한다.(홍수남, 이상은, 2009)

팜므파탈의 성격유형에는 요부형, 매혹형, 악녀형등이 있다. 악녀형은 성격적으로 심성이 나쁘고, 못된 여자이다. 남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며 이기적이면서, 욕심이 많다.

지금까지 신데렐라 장르 여주인공들의 선악 대립을 놓고 못된 여주인공에 감정이입을 하나거나, 악녀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연약한 청순가련보다는 주관이 확실하고 목적이 뚜렷한 악녀가 긍정적이며, 심지어 “나쁜 여자가 되자”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신데렐라 드라마가 있었다. 착한 여주인공은 일단 현실성이 떨어져서 시비거리가 된다. 도대체 요즘 세상에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없고, 누가

그렇게 사랑에 목숨을 거냐는 이유에서다. 여성의 자립이 사회적인 필요조건으로 확산되면서 시청자들에게 능력 있고 저돌적인 악녀들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일단 여성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악녀의 특성은 일면 건강한 현상이다.(남영숙, 2001)

요부형은 성격적으로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남자를 유혹해 파멸에 이르게 한다. 드라마상에서 거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해 복수하게 되는 성격을 많이 보여준다.

매혹형은 성격적으로 화려하면서 섹시한 느낌을 비주얼적으로 많이 보여준다. 자신의 성적 매력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팜므파탈은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매체에서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악녀형 팜므파탈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악녀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서 화를 잘 내며, 인내심과 배려가 부족하고, 억세면서 높은 톤의 말투를 구사하며 욕심이 많은 성격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생각하지 않고 위험에 빠트리기도 한다. 이렇듯 심성이 올바르지 못하는 여성을 일컬어 ‘악녀’라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성격의 캐릭터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는 마녀, 요부, 팜므파탈등이 있다. 악마랑 비유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심성이 악한 여자라고 볼 수 있다. 요사스러우면서 간사한 성질을 가지고도 있다. 이러한 성질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악행을 가할 때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의 팜므파탈은 성적 매력으로 유혹하는 면이 많은 서양보다는 가부장제의 유교사상이 지배적인 한국의 팜므파탈은 악행적인 면이 더 강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부’ 보다는 ‘악녀’의 모습이 예술 분야에

서 이용하게 되면서 흥행에서도 성공하면서 더욱더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매체속에서 많이 부각되었다.

영상매체 속의 팜므파탈이 하나 같이 악녀로 지탄받았던 이유는 그녀들이 ‘음란’ 하다는데 있다. 거부할 수 없는 성적 매력을 드러내며 남성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유혹하는 여자’ 라는 것이다. 그런데 ‘음란함’ 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녀들이 기존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에 대한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적 대상을 선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김현회, 2010)

1) 영상매체에서의 성격메이크업

배우가 맡은 배역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성격표현을 하기 위한 분장 창조가 필요하다. 인물의 시대적 배경, 환경, 성격, 헤어스타일, 의상, 메이크업을 통해서 관객 또는 시청자에게 극 중 인물로 이해하게끔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관객 또는 시청자들은 화면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얼굴을 통해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배우는 메이크업을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특히 성격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중에서도 배역의 성격을 표현하는데 가장 큰 요소로써 인물의 기본적인 얼굴형태의 한계를 벗어나게끔 메이크업에 따라 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성격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 성격메이크업은 연기자가 맡은 배역의 성격을 관객 즉 시청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분장으로 영상매체의 부분들인 드라마, 영화, 코미디의 연기자들에게 행해진다. 이때 배역의 성격은 극본에서 얻어지는데, 극본에 표현된 대화나 설명문에 내재된 인물의 성격과 시대적 배경, 환경, 연령, 외양 특징, 작품 속 다른 인물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연기자의 외양에 따라 용모의 변화 폭을 결정하게 된다. 배역의 성격을 정하는 것은 연기와 더불어 분장도 꼭 필요하다.(박승배, 1991)

영상매체에서 성격 메이크업은 등장인물의 주어진 성격을 표현하는 작업으로서 연기력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는 시대상황이나 인물의 개성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령, 사극의 경우, 역사적 배경과 등장하는 인물, 사건, 분장 등이 사실 고증에 충실하면 할수록, 시청자들로 하여금 설득력 있는 상상을 가능케 하고 감성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강대영, 2000)

따라서, 성격 메이크업의 기본 목적은 연기자의 얼굴을 보완, 수정 뿐만 아니라 얼굴의 인상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팜프파탈 성격메이크업도 시대적 메이크업 트렌드 및 새로운 패턴을 함께 적용시켜 변화하게 되었다.

2) 팜프파탈 성격별 유형과 메이크업

팜프파탈 성격표현의 메이크업 주요 패턴으로는 강렬한 레드 립과 각진 눈썹으로 성격을 표현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메이크업 트렌드도 스모키 메이크업의 패턴이 유행함에 따라 눈을 강조하면서 강렬하고, 화려한 여러가지 스모키 패턴이 나타났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더욱 발달한 파티문화, 클럽문화로 화려하면서 강렬한 눈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메이크업인 스모키 메이크업이 발달하였다. 팜프파탈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컬러를 강조한 입술 메이크업 패턴과 함께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더욱 다양하게 인물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다.

3) 한국TV드라마에서의 팜므파탈

영상매체 속에서 팜므파탈 이미지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영상매체 중에서도 특히 TV는 대중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이다. 그 중 드라마 분야는 다양한 성격을 표현하여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드라마 속에서 팜므파탈의 성격 표현은 다양하다. 주인공 옆에서 질투하고 괴롭히는 성격, 남자에게 상처를 받고 변신하여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복수하는 성격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팜므파탈의 성격 중 악녀의 성격은 주인공을 괴롭히면서 좀더 주인공이 불쌍해보이게 하면서 착한 주인공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그 상황을 헤쳐나감으로써 이야기의 전개를 점점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준다. 대중들에게 비난받는 경우가 있다. 남자에게 상처를 받고 복수하기위하여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변신하여 복수하는 성격인 요부는 현대에 들어서 옛날처럼 여자는 무조건 참고, 당하는 캐릭터가 아니다. 그리고 복수에 있어서 못된 성격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복수이고, 대중들 대신 남자에게 통쾌하게 복수해줌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준다. 과거에는 팜므파탈의 이미지가 주인공 옆에서 캐릭터를 보조해주는 캐릭터가 더 많았다면, 21세기 들어서는 주인공 캐릭터로써 팜므파탈 이미지가 중심이 되는 드라마가 좀더 많아졌다. 그 이유는 사회의 흐름상 여성이 사회에 진출이 많아 짐으로써 좀더 소신있고 당당한 여성상이 현대의 여성상이되었기 때문이다. 드라마 속에서 팜므파탈 캐릭터가 나타날 경우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화제가 된다. 시대가 변할 수록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진다. 그러므로 조금 더 자극적인 소재, 캐릭터가 아니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에서는 조금 더 자극적인 소재, 또는 사회적인 문제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문서원·윤천성(2011)은 최근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악녀들은 모두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마냥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의 심리를 반영해서 캐릭터를 창조하거나 캐릭터가 단순하지 않고 보는 이가 공감할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처럼 선과 악의 캐릭터를 분명하게 나누지 않고 악녀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의 원인과 과정을 호소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 속 악녀들은 현실적 삶에서의 개인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가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다는 인식이 일반 대중 속에 퍼져있고 그것이 드라마의 인물들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드라마 속 악녀는 점점 더 대중적이며 현실적인 캐릭터로 변모한다고 밝혔다.

4) 한국영화속에서의 팜므파탈

영화속에서의 팜므파탈은 시각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조금 더 다양한 캐릭터를 볼 수 있다. TV에서는 심위기준, 연령제한등 전체관람 연령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면에서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팜므파탈의 다양한 상상력과 재창조된 캐릭터를 시대적 발달에 따라 같이 변화 하였다. 과거에는 남성을 주체로 한 영화가 대부분이었다. 여성의 캐릭터는 청순가련형의 현모양처의 모습이 대부분이었고, 남성에 의해 남성이 원하는 캐릭터가 늘 만들어졌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 한국영화는 팜므파탈의 성격을 나타낼 때도 최하위 계층에서 늘 억압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신의 성을 이용해 계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우리나라 유교적 사상에 의해 권선징악의 결말로 내려졌다. 이 시대에서는 팜므파탈의 모습은 가부장적 제도내에

의해서 주로 악한 계모나 첩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1960년 영화 ‘하녀’ 에서는 하위계급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녀들의 욕망은 음모와 악행을 통해 획득한다. 여성은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불순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결론은 늘 남성에게 의해서 처벌을 받았다.

팜므파탈의 성격적 특징을 사회적, 도덕적인 면에서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영화들이 등장하게 된다. 악녀의 모습이 극한되었던 것에 비해 악녀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을 그린 신여성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과거 팜므파탈의 직업으로는 계모, 첩, 하녀, 식모 등 하급계층의 모습이었던 반면, 사회도 농촌사회에서 도시화로써 급성장함으로써 매춘부의 캐릭터도 많이 볼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팜므파탈 캐릭터는 지금까지 남성 판타지가 생산해 왔던 병적으로 성애에 집착하는 여성들은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과거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생기 있는 여성들,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여성들, 성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당당한 커리어우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한국영화계가 1990~2000년대에 들어서 영화 속에서 재현된 여성들의 당당하고 독립적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남성들의 판타지인 왜곡된 여성의 모습만으로는 가부장제에서 양성평등으로 가는 시대 변화속에서는 설득력이 없으며, 영화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릴 뿐이다. 이제 여성은 ‘성녀’와 ‘악녀’로만 구분되지 않고 현실에 발을 붙인 피와 살이 있는 진짜 인간으로 재현되었다.

최근 영화 속에서 팜므파탈의 모습은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보여주거나 가정을 파괴시키고, 같은 여성을 괴롭히는 나쁜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야기의 전개에 반전을 요하며 아름다우면서 당당하고 능력있는 현대여

성상인 커리우먼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영화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카리스마의 모습으로 또 하나의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다.

Ⅲ. 1990년대 이후 영상매체에 나타난 대표 팜므파탈 메이크업 분석

1. 팜므파탈 캐릭터 선정기준

영상매체 대표부분인 드라마와 영화 분야에서 인기에 보답하듯이 보여주는 높은 시청률과 시대에 트렌드와 이슈를 만들며 매력적인 팜므파탈의 캐릭터를 보여준 작품들을 선정했다.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드라마와 영화속 팜므파탈의 캐릭터 표현을 메이크업으로 개성있게 표현했던 역할들을 또한 선정에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사회적 진출이 더욱 늘어난 여성상에 비추어 남자 보다 더 일 잘하고 야망에 불타는 여성들이 악녀로 그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메이크업 면에서도 더욱 세련되면서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악녀는 악행의 면을 보여주는 것에 충실했다. 시청자들에게 원망을 받으며 주인공 역할을 돋보이게 해주는 게 캐릭터의 특징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남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난 후 모습에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응원에 입어 복수녀의 차가운 캐릭터를 보여주기도 했다. 드라마 스페셜 토마토가 성공하면서 악녀 캐릭터는 도시적이고, 능력이고,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의 커리우먼으로 발전시켰다. 2000년 들어서면서 악녀 캐릭터는 현실적이면서 한층 더 악랄하고 냉정하게 비추어 진다. 자신의 허영과 욕심, 명예를 위해 친구를 짓 밟고 올라선다던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한다. 사극에서는 궁궐 속에서 여자들끼리의 시기와 질투 모함을

통해 인간의 내면의 추악한 내면까지 보여줌으로서 악녀의 진수를 보여줬다. 여성의 최대의 적은 여성이라는 걸 궁궐이라는 공간에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모습을 표현한다. 왕의 사랑을 받기위해 또 자기의 아들을 왕을 만들기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말이다. 2002년 이후 현대 극에서는 신분 상승을 위해 돈과 권력에 이끌려 다니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악녀 막장드라마가 악녀의 대결구도를 그리면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렇듯 영상매체에서 악녀 캐릭터는 돈, 권력, 신분상승,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다양하게 성격을 보여준다. 악하지만 미워할수 없는 캐릭터로 시청자를 화나게 하고 악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며 공감을 얻게 되어 사랑을 받는다. 성격적으로 악녀를 표현할 때 시대별 트렌드에 따라 성격을 표현하는 연기와 더불어 걸 모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메이크업 부분이다.

<표 1> 악녀 주인공 드라마 시청률

악녀 주인공 드라마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	채널	방영연도	방영횟수	평균 시청률
1	청춘의 덫	SBS	1997	24	35.7%
2	여인천하	SBS	2001~2002	150	34.3%
3	인어아가씨	MBC	2002~2003	246	33.6%
4	내남자의여자	SBS	2007	24	26.7%
5	아내의유혹*	SBS	2008~2009	85	23.8%
6	미워도 다시 한번 2009*	KBS2	2009	8	19.2%
7	태양의여자	KBS2	2008	20	13.9%

- 조사기간 : 1997년1월1일~2009년3월2일/ *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 AGB닐슨미디어리서치

copyright datanews

2. 1990년대 이후 영상매체에서 팜프파탈 캐릭터 대표작품

1990년대 이후 메이크업의 경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90년대 초반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 자연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관심은 메이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에콜로지(ecology)경향에 따라 자연의 색이 주조 색을 이루었는데, 주조 색으로는 베이지, 브라운, 오렌지 등 부드러운 색들이 있다. 메이크업 패턴에서도 아치형 눈썹과 아웃커브로 입술라인을 크게 그리는 모양의 입술강조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유행했던 브라운과, 오렌지, 베이지 등의 컬러를 입술에 포인트를 주어 여성스러우면서 건강하고, 섹시해 보이는 메이크업들이 많이 선보였다.

금수진·한명숙(1999)는 1990년대는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에콜로지로 대표될 수 있다. 그리고 주황색계열 및 갈색계열의 색상이 자연적 이미지의 주조색상이 되었고, 둥글고 가늘고 얇은 눈썹선에 도톰한 입술을 나타냈다는 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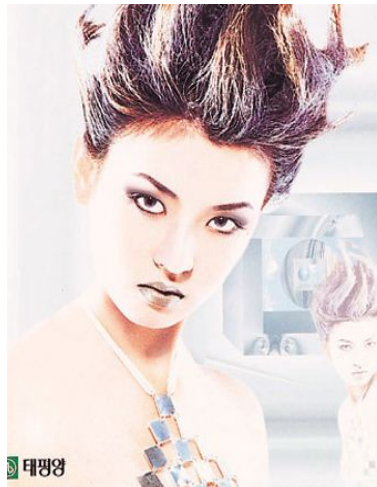
<그림 1> 1993년 마몽드/ 밍크 브라운 :

1990년대 초반 유행 메이크업의 이영애

(출처: <http://piafpiaf.blog.me/130067237386>)

1990년대 중 후반부로 지나면서 메이크업은 밀레니엄을 앞두고 세기말의 느낌과 새천년의 느낌을 동시에 반영하듯 양극화 메이크업 패턴이 유행하였다. 먼저 어두운 색조들을 사용하여 눈매를 강조하거나, 입술에 와인 색, 다크 브라운, 다크 레드 등 어두운 계열의 컬러로 입술을 강조하여 차가운 면서 어두운 메이크업 패턴이 있다. 다음은 밀레니엄의 영향으로 우주적 미래 이미지로 펄을 사용하여 샤이니(shiny)한 느낌의 밀레니엄 메이크업 패턴등이 같이 유행하였다.

금수진·한명숙(1998)은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에콜로지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며 그것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계절이라는 변인으로 인하여 쓰이는 색상이 계절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행색상은 1990년대 전반기에서보다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전반보다 진해지고 어두운 색상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2> 1996년 태평양 인쇄광고 사이버 58

밀레니엄 느낌의 메이크업의 김소연

(출처: http://nufo.amorepacific.com/upload_files/pacific/contents/NPP/90-166.jpg)

2000년대 이후로는 메이크업 경향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워졌다. 메이크업을 했지만 안한 듯 한 느낌의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피부표현에 중심을 많이 둔 메이크업이 발달하였는데, 파운데이션과 더불어 베이스 제품들인 메이크업 베이스나, 선크림, 프라이머등의 제품의 발달과 다양한 피부 질감 표현등이 나타났다. 과거의 미의 상징인 하얀 피부표현을 위해서 했던 두터운 피부화장을 벗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를 최대한 살려서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은 얇게 펴발르고, 컨실러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만 사용하여 잡티를 가리는 자연스러운 피부표현방법등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피부표현 기법이 발달하였다. HDTV의 출연으로 대중매체인 TV에서 얼굴을 클로즈업 할 경우 점, 주름, 모공까지 보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그러면서 건강과 뷰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과 젊음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되었다. 과거 서양인의 아름다움인 큰 눈, 높은 코, 작은 얼굴이 미의 기준에서 어려워 보이는 얼굴이 최고의 미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서 동안으로 보이는 얼굴에 관심이 높아 졌다.

눈썹은 약간 굵으면서 일자형태의 눈썹모양의 자연스러운 눈썹의 형태가 표준 눈썹 형태이다. 아이라인은 자연스럽게 속눈썹 사이사이만 채워서 그려준다. 입술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술에 립글로스만 바르거나, 립스틱과 립글로스가 섞여있는 제품으로 입술색과 자연스러운 윤기를 표현할 수 있었다. 볼터치는 홍조된 볼로 보이기 위한 볼터치 패턴이 유행하였고, 귀엽고 어려워 보이는 느낌을 표현한다.



<그림 3> 2003년 영화 싱글즈 : 내추럴 메이크업의 엄정화

(출처: <http://movie.naver.com/movie/bi/mi/photo>

[View.nhn?code=36415&imageNid=5802189](http://movie.naver.com/movie/bi/mi/photo/photo.nhn?code=36415&imageNid=5802189))

2000년 중반으로 가면서 자연스러우면서 안한 듯 한 투명 메이크업의 유행과 대조적인 섹시하고 강렬한 메이크업인 스모키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젊은 여성들을 기준으로 파티와 클럽문화와, 여자 연예인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윽하고 관능적이면서 신비로워 보이는 눈매를 표현해주는 스모키 메이크업 패턴은 미디어에서 주로 악녀 캐릭터나 가수들의 무대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다. 이 패턴은 아이라인과 어두운 컬러의 섀도우를 통해 다양한 눈의 모양과 신비로운 느낌을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 패턴을 통해 다르게 변신을 요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주로 블랙, 그레이, 브라운 등 어두운 컬러를 기본으로 아이 섀도우와 아이라인을 표현한다. 눈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볼터치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입술은 누드 톤이나 인디언 핑크 등의 립스틱이나 투명 립글로스로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눈을 강조해도 많이 부담스럽지 않고 더욱 눈으로 시각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관능적으로나 더욱더 섹시해 보이기 위한 이미지 표현일 경우에는 스모키 메이크업과 더불어 레드컬러 계열의 립스틱을 같이 사용하여 더욱 더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림 4> 2009년 numero 12월호 스모키 메이크업의 송윤아
(출처: <http://www.newslive.co.kr/news/article.html?no=36001>)

1) 1995년 SBS 드라마 장희빈

사극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여성주인공들이 대개 유명한 악녀, 혹은 요부로 수 차례 리바이벌 될 정도로 인기있는 소재이다. 장희빈을 보는 관점에 따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물로 묘사되기도 하기 시대를 풍미한 여성으로 묘사되기도 한다.(김은진, 2004) 조선시대 팜므파탈의 대표인물로써 역사 속에서 악녀중에 악녀로 손꼽히는 장희빈은 사극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녀 캐릭터 중에 최고이다. 6년에 한번씩은 만들어 진다는 드라마 장희빈은 1990년대 최고의 히트작품으로 정선경을 톱스타 위치에 올라서는데 성공시켰다. 그리고 최고 시청률 45.5%를 기록하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베이스는 한톤 어두운 옐로우 톤의 잡티가 보이지 않을 만큼의 약간은 두터운 베이스와 광택감이 전혀 없게 파우더를 사용함으로써 매트 한 느낌이 들게 했다. 아이 메이크업에서 눈썹은 각진 눈썹 모양의 눈썹형태로 강한 악녀의 인상을 표현하였고, 아이 색도우는 오렌지 및 브라운 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눈의 깊이감을 표현하였다. 아이라인은 눈을 떴을 때 보일 정도로 눈 길이보다 살짝 길게 그려 또렷하면서도 강인한 눈매를 표현하였다. 볼터치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입술 색을 짙은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사용하여 상대 연기자와 대비시켜줌으로써 강한 캐릭터를 표현하는 포인트로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을 하나하나 또렷하게 표현하여 강인한 성격을 보여주었고, 전체적인 컬러사용은 오렌지, 브라운 계열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사극분장의 특징인 펄감 있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 5> 1995년 SBS 드라마 장희빈의 정선경
(출처: http://spv.sbs.co.kr/viewer/viewer_popup.jsp?image_id=10001268712)



<그림 6> 1995년 SBS 드라마 장희빈 인경왕후 김씨역의 장혜숙

(출처: http://spv.sbs.co.kr/viewer/viewer_popup.jsp?image_id=10001268798)

<표 2> 장희빈의 메이크업 분석 : 정선경

메이 크업	베이스	약간 두터운 베이스, 매트함
	눈썹	각진형태
	아이라인	눈길이 보다 조금 길게 그림
	새도우	오렌지 및 브라운 계열
	입술	짙은 브라운 계열
	볼터치	거의 사용하지 않음

2) 1997년 SBS 드라마 청춘의 덫

평균 시청률 35.7%, 최고 시청률 53.1%의 기록을 보여주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서윤희 역활의 심은하라는 불행한 악녀를 등장시켰다. 일반적으로 악녀는 시청자들의 미움과 원망을 받으며 캐릭터가 완성되어 가는 게 특징이지만, 심은하는 되레 시청자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복수녀의 차가운 캐릭터를 제대로 보여줬다. 당시 심은하가 이종원을 향해 이를 갈며 내뱉던 대사 부숴 버릴거야는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1979년 영화 청춘의 덫을 1997년 드라마 청춘의 덫으로 한번 더 리메이크된 작품이다. 1979년 작품 속에서 주인공인 서윤희역에 원미경이 제 18회 대중상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1997년에는 서윤희역에 심은하가 맞아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었다. 극 중 주인공인 서윤희역할은 그만큼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작품성으로도 인정받은 악녀 캐릭터이다.

청춘의 덫은 남자주인공으로 강동우 역할에 이종원, 노영국 역할에 전광렬, 그리고 여자 주인공에 서윤희 역할에 심은하, 노영주 역할에 유호정으로 구성한다. 인간 본연에 숨겨져 있던 욕심과 야망, 복수심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로이다. 극중 서윤희 역할에 심은하는 이 드라마에서 남자에게 배신당한 뒤 철저한 복수를 보여준다. 서윤희는 고아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밝고 착한 성격으로 지고지순한 순수한 여성의 성격이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자의 야망과 신분상승을 위해 자신을 배신하게 되고, 아이의 죽음을 통해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가득찬 악녀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된다. 극중 초반에는 순수하면서 착한성격에서 중반 부부터 악한 성격의 악녀 캐릭터 성격을 연기한 심은하는 이 드라마 이후로 연기파 배우로 더욱 인정받았다. 그리고 심은하의 대표작품중에 한 작품으로 손꼽이기도 한다.

베이스는 잡티가 안보일정도의 베이스와 투명해보이면서 뽀송뽀송하게 보이게끔 광택감이 없게 보이면서 하얗고 깨끗한 피부표현을 하였다. 아이 메이크업 중에서 눈썹은 눈썹 산을 둥근 형태로 올리면서 약간은 올라간 형태의 눈썹형태이다. 아이 새도우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아이라인은 눈 형태에 맞추어 약간 길게 그려 주었다. 볼터치는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입술에서 짙은 브라운 계열의 색을 사용함으로써 깔끔하면서 강인한 느낌을 보여주었다.

비서가 직업인 서윤희에 맞게 색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깔끔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였고, 나중에 극 전개상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입술에만 주 포인트를 주었다.



<그림 7> 1997년 SBS 드라마 청춘의 덫의 심은하

(출처: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11030312311001)

<표 3> 청춘의 덫의 메이크업 분석 : 심은하

메이 크업	베이스	광택감없이 하얗게 피부표현
	눈썹	약간 두꺼운 아치형
	아이라인	눈길이 보다 조금 길게 그림
	새도우	피부톤에 가까운 살구색상 사용
	입술	짙은 브라운 계열
	볼터치	사용하지 않음

3) 1998년 SBS 드라마 미스터 큐

SBS는 1998년 수목드라마 미스터 Q와 1999년 드라마 스페셜 토마토를 잇따라 히트시키며 악녀 캐릭터를 잘 나고, 능력 있고, 세련미 넘치는 커리어 우먼으로 진화시켰다. 특정 직업세계 속에서 감성적이면서 유행에 민감한 도시인들의 삶과 사랑을 보여준 드라마미스터 큐는 최고 시청률 45.3%를 기

록했다. 극 중 의류 회사인 라라패션이라는 직장 내에서 에피소드와 청춘 남녀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스토리를 이어나갔다. 작가 허영만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주인공에는 남자 주인공 강토 역할에 김민중과 여자 주인공으로 한해원 역할에 김희선, 송윤아와의 삼각관계를 보여준다. 극 중 악녀 역할인 황주리는 회사 전무의 외동 딸로 디자인 실장이다. 욕심이 많고, 자존심이 세고,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강토를 좋아하여 한해원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극 중에서 디자인 실장인 황주리는 화려하고, 트렌디하면서 세련된 모습으로 커리우먼의 모습을 보여줬다. 송윤아는 데뷔후 3년동안 별로 주목 받지 못했지만, 1998년 SBS 연기대상에서 악녀 역할인 황주리 역할로 우수 여자 연기상을 받으며 연기변신에 성공하게 되었다.

베이스는 옐로우 톤을 많이 띄며, 잡티가 보이지 않게 하였고,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퍼 발라 약간은 두텁게 하였다. 아이 메이크업에서 눈썹은 중간 정도의 두께의 약간 간진 형태의 눈썹형태이고, 아이라인은 눈꼬리를 약간 올라가면서 또렷하게 보이게끔 약간 두껍게 그려졌다. 아이 새도우는 탁한 퍼플 계열의 색과 브라운 계열을 흘 모양으로 퍼 발라주었다. 볼터치는 사선으로 연하게 브라운 계열로 음영을 주었고, 입술은 본인의 입술보다 조금 더 크게 둥근형태로 아웃오브라인으로 그리면서 브라운 계열이나 붉은 레드 계열로 진하며서 어두운한 색감의 계열을 보여주었다.

입술 형태를 아웃오브라인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술 모양보다 조금 더 크게 둥글게 레드계열로 그려 다른 형태의 입술 라인을 보여 주었다. 이 형태의 입술 모양은 섹시한 느낌을 볼 수 있다.



<그림 8> 1998년 SBS 드라마 미스터 큐의 송윤아
(출처: <http://mad4tv.com/31>)

<표 4> 미스터큐의 메이크업 분석 : 송윤아

메이 크업	베이스	옐로우 톤의 두텁게 함
	눈썹	중간 두께의 약간 각진형태
	아이라인	약간 두꺼운 두께의 눈 꼬리를 약간 올림
	새도우	탁한 퍼플, 브라운 계열의 흘 모양
	입술	둥근형의 레드계열, 브라운 계열
	볼터치	사선형태의 브라운 계열

4) 2000년 MBC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의 내용은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고 밝은 성격의 진 선미와 얼굴은 예쁘지만 욕심과 허영심이 많은 허영미 두 여성의 대조적인 캐릭터로 방송국 안에서 최고 여성 앵커 자리를 차지 하려고 벌이는 대립과 경쟁의 과정 속에서 사랑과 우정을 그린 드라마이다. 최고 시청률 48.3%를 기록하면서 2000년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중 하나이다.

극 중 악녀인 허영미는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공사판 막노동자로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다. 가난을 벗어나고 신분상승을 하기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허영미는 진선미가 가진 모든 것에 열망하고 부러워하면서 성장한다. 또 원하는 것은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욕심이 많으면서 늘 사람들에게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는 성격이다. 어른이 돼서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취직하면서 명예를 위해 친구와 전 연인을 짓밟고 올라선다. 허영과 욕심으로 가득한 허영미는 친구이자 방송국 동료인 진선미의 남자 형철을 차지하기 위해 진선미를 배신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세련되고 지적인 외모의 아나운서모습을 악녀로써 색다르게 보여주면서, 악녀의 성격중 하나인 숨겨진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베이스는 깨끗하면서 잡티가 보이지않을 정도의 피부 표현을 하였다. 아이 메이크업에서 눈썹은 각지면서 약간 진하게 그려 또렷하게 표현하였고, 아이 색도우는 극중 아나운서 직업의 특성상 지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듯이 오렌지계열의 옅은 베이지만 피부 톤에 맞게 음영을 주었다. 볼터치는 브라운 계열로 음영만 주었고, 입술에 옅은 브라운계열과 어두운 레드계열을 같이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게 특징이고, 허영미의 다중인격을 보여 주는 특징으로 어떨 때는 메이크업을 거의하지 않고, 색감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투명 메이크업으로 청순해보일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이면서 입술에 어둡게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그림 9> 2000년 MBC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의 김소연① :

짙은 메이크업한 경우

(출처: <http://blog.naver.com/javajapan?Redirect=Log&logNo=80025382099>)



<그림 10> 2000년 MBC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의 김소연② :

얇은 메이크업한 경우

(출처: <http://blog.naver.com/mojitoto?Redirect=Log&logNo=114027801>)

<표 5> 이브의 모든 것의 메이크업 분석 : 김소연

메이 크업	베이스	잡티 앓보일 정도 표현
	눈썹	진한 각진형태
	아이라인	눈 길이에 맞춰 또렷해 보이게 기본형태
	새도우	오렌지 계열, 옅은 베이지 계열
	입술	옅은 브라운 계열, 어두운 레드 계열
	볼터치	브라운 계열 음영

5) 2005년 영화 친절한 금자씨

2005년 개봉작으로 백선생 역할에 최민식, 이금자 역할에 이영애가 주인공이다. 2006년 4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 26회 청룡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해외 영화제에서 감독상 여우주연상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자인 여성이 주인공으로 여성의 시각과 관점으로 더욱 나타난 작품이다.

유아납치와 살인 누명을 씌운 백 선생으로 인해 감옥에 수감된다. 아름다운 외모와 스무살의 어린나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13년동안 감옥에 수감된 이금자는 13년 동안 복수극을 꾸민다. 이금자는 극 중에서 친절한 금자씨와 마녀 금자씨 두 가지 성격을 보여준다. 뛰어난 미모와 두 가지 성격으로 감옥 안의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면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악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수의 착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금자씨로 불리면서 캐릭터의 양극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극 중 금자는 출소 후에 백선생에게 복수를 하기위해 외모적으로 파마를 하고, 가죽옷을 입는 등 변신을 한다. 금자가 화장하는 장면있는데, 그 장면에서 눈에 빨강 아이 새도우한 금자의 얼굴을 보며 옆에 있던 사람은 “왜 눈만 시뻘겋게 하고 다녀?”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금자는 “친절해 보일까봐...” 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친절한 금자씨를 대

표하는 장면 중 하나이다.

베이스는 본인의 피부톤을 기본으로 하여 약간 창백해 보이면서 깔끔하게 표현하였다. 아이 메이크업 중 눈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눈썹형태에 맞추어 빈 부분만 메꿔줌으로 자연스럽게 완성시켰고, 아이 새도우는 베이스를 붉은 빨강색 계열로 아이 흘까지 전체적으로 퍼 발라 주었고, 아이라인은 눈 형태에 맞추어 위에 라인과 아래 점막까지 전체적으로 채워 약한 스모키 형태로 표현하여 또렷하면서 음영을 주었다. 눈 밑에는 오렌지 계열의 약한 브라운을 섞어 더욱 깊이감을 주었고, 치크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창백한 피부와 아이 메이크업을 더욱 강조하였다. 입술은 연한 오렌지 색깔로 입을 표현하였다.

기존에 악녀 메이크업과 다르게 창백한 피부표현과 눈에 강렬한 색감을 포인트를 주어 악녀 메이크업의 다채로운 패턴을 보여 주었다. 특이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다양한 색채감에서 느끼는 신비한 매력을 표현하였다.

김은하(2007)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화이트 강조로 피부를 표현하였고, 눈 주변의 아이새도우를 과장된 형태로 강렬한 레드컬러로 표현하여 눈동자와 함께 그로테스크한 미를 강조했다. 아이라인과 속눈썹, 볼터치와 립도 뚜렷한 라인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림 11> 2005년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11&aid=0000014687>)

<표 6> 친절한 금자씨의 메이크업 분석 : 이영애

메이 크업	베이스	본인 피부톤보다 약간 창백해보임
	눈썹	본인 눈썹 형태
	아이라인	눈 형태 맞춰 라인과 점막을 채움
	섀도우	레드 계열, 오렌지 및 브라운 계열
	입술	연한 오렌지 계열
	볼터치	하지 않음

6) 2009년 영화 인사동 스캔들

복원 전문가 이강준 역할에 김래원과 미술계 거물 배태진 역할의 엄정화가 주인공으로 서울 인사동을 배경으로 그림의 복제, 밀매에 관한 에피소드들로 구성된 치열한 두뇌싸움과 뒷통수에 뒷통수를 치는 숨막히는 액션 스릴러 영화이다.

극 중 배태진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성격에 거친 말투도 가졌다. 단지 팜므파탈의 성격 뿐만 아니

라 살인, 사기, 밀수, 복제 등 거친 인간의 캐릭터를 가졌다. 돈과 권력에 욕심은 그녀의 욕망들을 진한 메이크업과, 강한 컬러의 의상과 화려한 퍼코트로 외적으로 보여줬다. 사랑 때문에, 복수 때문에, 질투 때문이 아닌 오로지 본인의 기본 성격에 의한 악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존의 악녀와는 다른 캐릭터의 모습이다.

베이스는 본인의 피부톤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아이 메이크업 중 눈썹은 사선 느낌의 직선으로 보통 크기로 본인의 눈썹 앞 머리에 크기에 맞추어 약간 흐리게 그렸다. 아이 새도우는 베이지, 골드 계열의 약간 펄감있는 베이스를 아이 홀 전체에 그라데이션 시켜주었다. 아이라인은 눈꼬리를 길게 사선 방향으로 올려서 그리고, 언더라인도 검정색 아이라인으로 그려 라인형태의 스모키 패턴으로 그렸다. 아이라인을 통해 눈꼬리를 올라가 보이게 꿈 하여 인상을 강렬하면서도 사납게 보이게 하였다. 볼터치는 사선형태로 오렌지, 핑크 계열의 컬러를 사용함으로 세련되면서 도시적인 느낌을 보여주었다. 입술은 베이지, 누드 톤으로 스모키 패턴의 아이메이크업만 강조하는 경우와, 어두운 레드컬러나 또는 밝은 계열의 레드컬러 등 여러 가지 레드 톤의 색감으로 섹시함을 표출하는 등 영화 속에서 다채롭게 보여주었다.

남자들 사이에서 혼자 여자 주인공이어서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었지만, 강인한 성격과 화려함을 동시에 보여 줄 수 있는 강하면서 화려한 메이크업 패턴을 통해 고급스러움, 섹시함, 강렬함, 악함 등 복합적인 악녀의 성격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2> 2009년 영화 인사동 스캔들의 엄정화 :

스모키 메이크업에 누드톤 립스틱을 한 경우,
스모키 메이크업에 레드톤 립스틱을 한 경우

(출처: <http://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nhn?code=51018&imageNid=5957161>)

<표 7> 인사동 스캔들의 메이크업 분석 : 엄정화

메이 크업	베이스	피부톤에 맞춤
	눈썹	약간 흐리게 사선형태의 직선
	아이라인	눈꼬리를 길게 사선방향으로 올림
	새도우	언더라인까지 검정라인으로 그림
	입술	베이지, 누드 톤, 레드 계열
	볼터치	사선형태의 연한 오렌지 핑크 계열

7) 2011년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부자집 외동딸에 공부도 잘하고 긍정적인 성격에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아온 한정원 역할의 김현주와 도박에 중독되어 빚쟁이가 된 아버지, 동생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세상에 비관적이게 되었고, 본인의 인생은 챙기지 못하면서 불행하게 살아온 황금란 역할의 이유리가 같은 날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병원의 실수로 바뀌게 되면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되었다. 29살 때 우연한 기회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바뀌게 되면서, 부자집 외동딸인 최정원과 불행한 집안의 황금란의 인생은 다시 뒤바뀌게 된다.

황금란은 악착같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부유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온 최정원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살아왔다고 느껴 미워하고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리고 편집장 송승준 역할의 김석훈과 최정원이 사랑하는 사이이다. 하지만 황금란도 송승준을 좋아하게 되면서 삼각관계로 얽히게 되면서 송승준을 뺏기 위한 황금란의 악행이 점점 더 심해진다. 결국은 모든 악행이 드러나게 되었고, 최정원이 용서해주면서 황금란도 잘못을 뉘우친다. 송승준과 최정원의 사이를 인정하게 되면서 해피 엔딩으로 드라마는 결말이 난다. 29살 이전에는 가난한 집의 딸이었던 황금란은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삶에 찌든 면을 보여주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10년 넘게 뒷바라지 한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지만, 아무런 힘이 없던 이유로 참기만 해야 했다. 하지만 원래 부자집 딸의 부모를 되찾은 이후로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게 되면서 화려해진 패션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변신한 모습의 황금란을 보고 배신했던 전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말하지만, 황금란은 자

신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복수한다. 황금란의 뒤바뀐 인생의 변화와 성격의 변화를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메이크업의 큰 변화로 보여주었다.

베이스는 본인 피부톤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아이 메이크업 중 눈썹은 직선 형태의 모양으로 보통크기로 머리 컬러에 맞추어 갈색으로 연하게 그렸다. 아이 색도우는 골드나 오렌지 계열의 펄감이 있는 베이스를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펴 발라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펄감은 미세한 펄감으로 조명에 따라 빛이 약간 날 정도이다. 아이라인은 눈 꼬리를 올리면서 길게 사선 방향으로 올려서 그리고, 언더라인도 검정색 아이라인으로 그려 라인형태의 스모키 패턴의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주었다. 볼터치는 생략하는 경우와 핑크 톤으로 광대에 동그랗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입술은 핑크계열의 립스틱과 립글로스를 같이 사용하였다. 볼터치와 립스틱 컬러를 핑크계열을 사용함으로써 20대의 사랑스럽고, 자유분방함, 화려하면서도 악랄한 캐릭터 표현하고자 하는 메이크업 패턴을 볼 수 있었다. 강렬하게 표현된 아이 메이크업의 패턴과 얼굴의 다른 부분에서 핑크계열의 컬러의 조합은 악녀의 강렬한 눈빛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우면서 당당하고, 발랄하면서 화려한 20대의 느낌을 더욱 잘 표현되었다.

문서원·윤천성(2011)은 황금란의 메이크업 특징을 핑크, 오렌지톤의 색깔의 사용과 약간은 과장된 느낌이며 세미 스모키처럼 눈매를 확실하게 강조하여 표현, 깨끗하면서 매서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고 하였다.



<그림 13> 2011년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이유리

(출처: <http://blog.naver.com/skrubarlove?Redirect=Log&logNo=90116818489>)

<표 8> 반짝반짝 빛나는의 메이크업 분석 : 이유리

메이 크업	베이스	피부 톤에 맞춤
	눈썹	보통 굵기에 직선형태 갈색
	아이라인	눈꼬리를 길게 사선방향으로 올림 언더라인까지 검정라인으로 그림
	새도우	펼감있는 골드계열, 오렌지 계열
	입술	핑크 계열
	볼터치	사용하지 않거나, 핑크계열로 광대에 동그랗게 함

8) 2011년 MBC 드라마 계백

계백에서 계백 역할의 이서진은 백제 말기의 장군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무너져가는 나라에 충성을 다한 충신이다. 드라마에서는 백제의 왕 의자와 대립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며, 여자 주인공 은고 역할의 송지효를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를 보여준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역할의 조재현은 어렸을 적대 세력인 사택비에게 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

고 자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보처럼 가면을 쓰고 자랐다. 어른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숨겼지만, 자신의 힘이 세지면서 원래 성격인 강렬한 카리스마와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능력으로 백제를 이끌어 나간다. 은고 역할의 송지효는 뛰어난 미모와 침착함과 총명함을 가진 성격으로, 의자와 계백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여자 주인공이다. 좌평 1품이고 사택적덕의 딸이자 무왕의 비(妃)인 사백비 역할의 오연수는 현명하면서도, 냉철한 인물 이면서 또한 강경한 백제 근본주의자이다. 이 때문에 순수혈통이 아닌 의지가 보위에 오르는걸 극구 반대하고 자신과 무왕 사이에 낳은 교기를 왕으로 즉위시키고자 악행을 저지른다. 강한 성격의 왕비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때까지 사극에서 보여준 악녀 메이크업 패턴 중에서 가장 짙은 아이메이크업을 보여주어 첫 등장부터 이슈가 되었다. 청순하고 현모양처 이미지의 오연수는 이번 사택비 캐릭터로 새로운 연기 변신을 보여주고 호평을 받았다.

베이스는 피부톤에 맞추어 자연스러우면서 건강한 피부표현으로 전체적으로 건강하면서 활동적인 느낌이었다. 아이 메이크업 중에 눈썹은 사선형태의 눈썹모양으로 굵으면서 진하게 그려졌다. 아이 색도우는 브라운과 오렌지 계열의 컬러로 전체적으로 음영을 주었고, 아이라인은 눈 꼬리를 올려서 길게 그려주었고, 언더라인도 검정색 아이라인으로 그려 라인형태의 스모키 패턴의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주었다. 볼터치는 브라운과 오렌지 계열로 음영만 살짝 주었고, 입술은 옅은 브라운 계열로 표현하였다. 기존 가지고 있는 눈 보다 더욱 크면서 눈 꼬리를 인위 적으로 사선으로 올려줌으로써 더욱 더 강렬함을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얼굴의 윤곽을 또렷해 보이고 커 보이게 꿈 메이크업 하였다.

기존 사극에서의 악녀의 캐릭터를 중에 가장 화려한 메이크업과 가장 강

렬한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줌으로써 악녀 캐릭터 성격을 극대화 하여 보여 주었다.



<그림 14> 2011년 MBC 드라마 계백의 오연수

(출처: <http://blog.naver.com/pink1004net?Redirect=Log&logNo=140135038690>)

<표 9> 계백의 메이크업 분석 : 오연수




메이 크업	베이스	피부 톤에 맞춤
	눈썹	굵으면서 진한 사선형태
	아이라인	눈꼬리를 길게 사선방향으로 올림 언더라인까지 검정라인으로 그림
	섀도우	브라운 계열, 오렌지계열
	입술	열은 브라운 계열
	볼터치	사선형태로 음영

<표 10> 1990년대 이후 팜프파탈 캐릭터 메이크업 비교 분석

	이미지	베이스		아이 새도우	눈썹	아이라인	치크	입술	
장희빈 (정선경)			한톤 어두운 옐로우톤 광택감 없이약간 두텁게 표현	오렌지, 브라운 계열	중간굵기, 각진형태로 진하게 표현	눈길이 보다 살짝길게 표현	거의 사용 안함		질은 브라운 계열의 입술라인 선명하게 등글게 표현
청춘의 뫼 (심은하)		 	광택감 없이 피부톤 보다 한톤 밝게 피부표현	피부톤에 가까운 살구계열	직선모양 의 눈썹산은 둥근형태로 진하게 표현	눈형태에 맞추어 약간 길게 표현	하지 않음		질은 브라운 계열의 선명하게 입술라인에 맞게 그림

<p>미스터 큐 (송윤아)</p>			<p>옐로우톤, 잡티가 않보이게 약간 두텁게 표현</p>	<p>탁한퍼플 계열, 브라운 계열의 홀모양</p>	<p>중간두께 의 약간 각진형태</p>	<p>눈꼬리를 약간 올려서 또렷하게 보이 게끔 약간 두껍 게 그림</p>	<p>브라 운계열 에사선 형태로 연하게 음영</p>		<p>레드계열, 브라운계열로 둥근형태로 선명하게 그림</p>
<p>이브의 모든 것 (김소연)</p>			<p>피부톤에 맞추어 잡티가 보이지 않게 피부표현</p>	<p>옐은 베이지 계열 및 오렌지 계열로 음영</p>	<p>약간얇은 두께에 각진형태로 진하게표현</p>	<p>눈길이에 맞추어 또렷하게 그림</p>	<p>브라 운 계열 음영</p>		<p>옐은 브라운계열, 어두운 레드계열로 입술형태로 선명하게 그림</p>
<p>친절한 금자씨 (이영애)</p>			<p>한, 두톤 밝게하여 약간창백 하게 피부표현</p>	<p>레드계열, 홀모양</p>	<p>본인 눈썹모양 으로 자연스럽게 표현</p>	<p>눈형태에 맞춰 위, 아래라인 이어서 블랙으로 그림</p>	<p>하지 않음</p>		<p>연한 오렌지계열로 자연스럽게 표현</p>

<p>인사동 스캔들 (엄정화)</p>			<p>본인피부 톤 맞추어 자연스럽게 피부표현</p>	<p>펼치는 베이지 및 골드 계열의 베이스와 블랙, 브라운 색도우로 음영</p>	<p>자연스럽게 눈썹 형태에 맞추어 사선 방향으로 흐리게 표현</p>	<p>사선방향으로 올려서 두껍게 그리고, 아래라인도 이어서 진하게 블랙으로 그림</p>	<p>사선 형태로 연한 오렌지, 핑크계열로 음영</p>		<p>베이지, 누드, 레드계열로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다양하게 표현</p>
<p>반짝 반짝 빛나는 (이유리)</p>			<p>본인피부 톤 맞추어 자연스럽게 피부표현</p>	<p>미세한 펄감있는 골드, 오렌지 계열</p>	<p>중간두께에 갈색으로 사선 형태로 표현</p>	<p>라인형태의 사선방향으로 아이라인, 아래라인도 이어서 연하게 블랙으로 그림</p>	<p>광대 부분에 연한 핑크 계열</p>		<p>핑크계열 립스틱, 립글로스</p>

<p>계백 (오연수)</p>			<p>본인 피부 톤 맞추어 자연 스럽게 피부표현</p>	<p>오렌지, 브라운 계열로 홀모양으로 음영</p>	<p>사선형태 에 두껍게 진하게 표현</p>	<p>사선방향으로 아이라인은 길게 올려주고, 아래라인도 진하게 블랙으로 이어서 그림</p>	<p>브라운, 오렌지 계열로 음영</p>		<p>열은 브라운 계열</p>
---------------------	---	---	--	--	----------------------------------	--	------------------------------------	---	------------------

IV. 결론

본 연구는 영상매체인 TV, 영화 속에서 팜므파탈 캐릭터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1990년대 이후로 최근 2011년까지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 팜므파탈 캐릭터의 메이크업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대중매체 속에서 표현하는 성격요소 중 하나인 팜므파탈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상매체에서는 시대적, 사회적 발전에 맞추어 여성의 이미지를 과거 현 모양처 이미지에서 사회진출이 늘면서 당당하고 적극적인 여성상을 더욱 많이 보여주었다.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아름다움인 팜므파탈 캐릭터를 통해 여성의 매력을 표현할 수 있다. 팜므파탈의 성격 중 하나인 악녀성격을 표현할 경우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 및 성격 표현 방법인 메이크업을 알아보았다.

일반적 화장법 변화는 1990년대 초반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등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와 환경문제로 메이크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주조 색으로는 자연의 색이 주를 이루었고, 주조 색으로는 베이지, 브라운 오렌지등이다.

메이크업 패턴에서도 가늘고 깔끔하면서 진하게 그리는 눈썹과 아웃커브로 입술라인을 크게 그리는 모양의 입술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여성스러우면서 건강하고, 섹시해 보이는 메이크업들이 많이 선보였다.

1990년대 중 후반부에는 밀레니엄 느낌에 우주적 미래이미지에 맞게 펄을 사용한 샤이니(shiny)한 느낌의 메이크업 패턴과 세기말의 느낌에 차가우면서 어두운 메이크업 패턴이 유행하였다. 아이 메이크업은 어두운 색조를 사용하여 눈매를 강조하였고, 입술은 와인색, 다크 브라운, 다크 레드 등 어

두운 계열의 컬러로 입술을 강조하였다.

2000년대 초반으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1990년대 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메이크업 패턴들이 선보여 졌다. 눈썹모양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썹을 기본 틀로 지저분한거 만 다듬어서 흐린 부분만 채워서 눈썹모양을 완성시키는 스타일이 기본 눈썹스타일이다. 아이라인도 자연스럽게 속눈썹 사이사이만 채워서 그려주는 방식과 입술 메이크업 패턴도 90년대 유행이었던 오버사이즈 라인이 선명한 입술 모양의 진하게 표현된 방식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술에 립글로스만 바르거나, 립스틱과 립글로스가 섞여있는 제품으로 입술의 생기와 자연스러운 윤기를 표현할 수 있다.

2000년 중반부터는 메이크업을 했지만 안 한것 처럼 보이는 내추럴 메이크업 패턴과 눈에 어두운 컬러를 사용하여 다양한 눈의 모양과 신비로운 느낌을 표현해 주는 스모키 메이크업 패턴이 유행하였다. 내추럴 메이크업은 여성스러워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미지 이고, 스모키 메이크업은 섹시 하면서 강렬해 보이는 이미지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이미지에 맞게 여러가지 메이크업 패턴들을 가지고 트렌드에 따라 색조, 기법들을 다르게 하여 새로운 이미지 및 패턴을 창조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영상매체에서 선보였던 얇고 진한 눈썹으로 아치형, 각진 형태의 모양으로 눈썹을 강조하였고, 입술을 본인 입술보다 둥글형태로 더 크게 선명하게 그렸다. 립스틱 컬러는 브라운, 다크 브라운, 레드계열을 사용하여 입술을 강조하였다. 아이 메이크업에서 화려한 패턴을 보여주기 보다는 입술에서 어두우면서 진한 색감의 립스틱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입술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주로 선보였다. 이것은 1990년대 메이크업 경향이었던 얇고 진

하면서 깔끔한 눈썹과 아웃커브 형태의 입술라인에 브라운 컬러의 유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1990년대 메이크업 유행에 맞게 악녀 성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에서는 눈썹을 선의 형태로 진하게 그려 강조하였고, 다른 부분에서는 입술을 강조하여 악녀 성격을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90년대 악녀형 팜프파탈 메이크업에서 오렌지, 브라운, 어두운 레드 계열을 사용하여 아이 새도우 및 입술에 색을 표현하여 강조하거나, 진한 눈썹에 둥근 입술형태의 입술선을 또렷하게 그려 1990년대 메이크업 유행 경향에 맞추어 악녀형 팜프파탈 성격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하는 패턴들이 많이 선보여졌는데, 아이라인만으로 눈꼬리를 사선으로 인위적으로 올려줘서 눈매가 올라가보이게 하였고, 아래라인까지 같이 연결하여 눈매를 더욱 진해보이게 강조하였다. 블랙, 그레이,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아이 새도우로 사용하여 음영을 주어 깊은 눈매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눈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 눈썹 및 볼터치, 입술등 다른 부분은 색감을 낮춰서 눈을 더욱 부각시키거나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눈썹모양은 사선형이나 본인 눈썹형태로 연하거나 진하거나 하는 등 그 캐릭터에 맞게 다양하게 표현되었고, 볼터치는 생략하거나 윤곽을 잡아 줄 수 있는 음영을 브라운이나 오렌지 계열의 색으로 연하게 주어 표현하였다. 입술은 기본입술형태에서 베이지, 핑크, 레드 등 다양한 계열의 화사하고 밝은 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립스틱과 립글로스를 같이 사용하거나 하나만 사용하는 등 다양한 질감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2000년대 메이크업 경향이었던 동안 메이크업의 패턴인 자연스러우면서 일자형태의 약간 두꺼운 눈썹형태, 스모키 메이크업의 유행과 핑크, 베이지컬러의 립스틱 유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2000년대 메이

크업 유행에 맞게 악녀 성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에서는 아이라인을 중심으로 아래라인까지 연결시켜 블랙, 그레이, 브라운 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음영을 주거나 눈꼬리를 사선으로 올려 그려서 눈매를 날카로우면서 진하게 표현하여 특히 눈매를 강조하였다. 다른 부분은 생략하거나 아이 메이크업 보다는 약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트렌드 메이크업을 기본으로 악녀 성격 메이크업 요소가 함께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영상매체에서 나타난 악녀형 캐릭터는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시대에 맞추어 캐릭터도 변화하였는데, 성격적으로도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메이크업에서도 이 변화에 맞추어 성격 메이크업의 기본 틀에서 색깔을 통해서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사극 메이크업에서는 1990년대는 특히 필과 색감적으로 사용 제한이 있었다. 1990년대에는 눈썹과 입술에서만 색, 선적으로 강조하여 약간은 단조로운 악녀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011년 최근에는 눈썹, 아이라인, 아이 새도우를 통해 더욱 다채로운 색과 선의 라인을 더욱 크고 진하게 그리면서 눈매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입술 및 볼터치등의 다른 부분을 약하게 표현하는 패턴으로 눈매를 더 부각시킴으로 90년대 패턴과 다른 점을 알 수 있었다.

현대물의 메이크업에서보다 캐릭터가 분명하게 표현되는 사극에서 좀 더 메이크업적으로 성격 메이크업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는 다르게 메이크업의 제한도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영상매체의 현대물에서 악녀 메이크업은 특히 드라마에서는 다양한 시청자층과 긴 방영시간에 맞추어 우선 직업적 성향을 많이 따르게 된다. 악녀형 팜프파탈 메이크업에서 눈매를 강조할 때는 아이 새도우의 표현 기법에

서는 음영으로 눈매의 깊이감을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형태가 많다. 아이라인은 리퀴드 아이라인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라인의 느낌보다는 펜슬및 젤타입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우면서 또렷한 눈매를 표현하였다. 재료의 질감과 라인과 음영의 기법을 통해 자연스러우면 부담스럽지 않은 성격 메이크업을 보여 준다.

영화에서는 짧은 시간내에 캐릭터를 인식시켜야하고 뚜렷한 캐릭터가 많이 나타나 드라마에서보다는 메이크업적으로 색도 다양하면서 진하게 사용하고, 선의 라인형태도 굵고 진하게 표현하면서 더욱 강인한 눈매를 표현하면서 악녀형 캐릭터를 영화 속 에서 더 강조하여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메이크업은 시대와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극중 인물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상매체에서의 팜므파탈 캐릭터의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옴므파탈 캐릭터 메이크업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서울:지인당, 2000, pp.80~87.

Ralph Donald & Thomas Spann(2000), p.105.

학술지

권중문, “아날로그 TV와 HDTV 드라마 영상표현의 비교”, 언론과학연구, 제4권, 제3호, 2004, pp.5~39.

김수진·한명숙, “1990년대의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6권, 제1호, 1998, pp.84~93.

김수진·한명숙,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1990년대 패션과 메이크업의 경향”, 복식문화연구, 제7권, 제6호, 1999, pp.129~139.

김봉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분장의 변화”, 영상포럼, 통권24호, 12, 2004, pp.69~76.

김선영·이경선, “캐릭터이미지가 영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 메이크업디자인 학회지, 제2권, 제2호, 2006, pp.355~362.

김용선, “HDTV환경에 효과적인 분장기법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3권, 제1호, 통권 제7호, 2005, pp.49~65.

김은진, “한국 사극 속여성성과 담론 분석:대장금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제15집, 2004, pp.81~114.

김은하, “국내영화에 표현된 팜프파탈 이미지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제8권, 제3호, 2007, pp.289~306.

문서원·윤천성, “TV드라마 속 악녀 캐릭터 메이크업 분석에 관한 연구”, 뷰티산업연구, 제5권, 1호, 9호, 2011, pp.48~

51.

신단주, “영상메이크업”, 영상제작학회지, 제2권, 제2호, 2005, pp.100
~ 107.

하재영, “현행 제작방식과 HDTV의 촬영”, <영상포럼> 제18호, 한국방송
영상인협의회, 2000, pp.122~125.

홍수남·이상은, “팜므파탈 이미지와 스모키 메이크업의 상호연관성에 관
한연구-한국의 대중스타를 중심으로”, 한국인체예술학회
지, 2009, 제10권, 제4호, p.27.

학위논문

김봉천, “한국 TV 드라마의 성격분장에 관한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10~12.

남영숙, “TV 신데렐라 드라마 장르연구:1994년부터 2001년까지 주요 화
제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84~85.

김현희, “TV드라마에 표출된 부정적 여성인물 연구:2009~2009년 지상파
3사 드라마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pp.28~29.

인터넷

최초의 메이크업: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004>

스크린 :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0274>

ABSTRACT

A study on the make-up style called 'femme fatal'
in mass media since 1990

Jo Yeon Kyung

Make-up and Special Effect Make-up Major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Femme fatale, led the doomed men, attractive women need a unique nature that is very characteristic makeup. Sexual attraction to men have in common and that led to the ruin of the figures of the various forms of the pole, as well as the inner acting, these features must be described as superficial and outward characteristics with viewers when it comes to empathy. The implementation of femme fatale image based on the trend of the play, should consider the various elements such as the character of the actor and the composition of the play, et cetra. Therefore, it is better able to take in the whole

transition when studying the change of femme fatale image. In this research, I selected the femme fatal characters which displayed higher viewer ratings and became the talk of the town in the internet, articles, graphs and media, since 1990- when people began to expressed the femme fatale character frequently- until 2011, and analyzed the overall pattern of their makeup. The research focused on the makeup images and photographs of the visual media, such as dramas and movies. Also, it analyzed the makeup pattern of femme fatale character apart from the makeup trend.

With the contents of the study of this paper, Chapter 1 presents the needs, objectives, research methods and the scope of the present chapter. Chapter II present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video makeup, features and video media when necessary for the environmental factors in makeup. Video in the media came to representation of the femme fatale's Castle, but to learn about the underlying personality makeup, personality star femme fatale types since the 1990s the most evil femme fatale that appeared mainly in the analysis.

The first study of this paper, we would be able to discover that, depending on the current makeup trends, color of the skins, eyebrows, eyes, shape of lips and so the color based on the nature of the makeup and makeup patterns and applying them along with a new woman-femme fatale makeup.

Secondly, as appeared in the video media, Dejesus-femme fatale

characters change with female advance social and socially changing we look in varying degrees, depending on the character, this woman-femme fatale character varying could see that. With this change, we are able to know that makeup expresses the characters based on the character makeup, and also add colors like gold, pink and orange to express various images of woman, such as exclusivity, prettiness, confident and flush.

Third, in the modern dramas of the video media, femme fatale makeup patterns shows more natural character makeup. And in the femme fatale makeup patterns of films, femme fatale shows more variety of color and makeup pattern in dark colors, bold patterns showing the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the characters. In the period dramas in 1990s, while in the past to mostly showed feminine femme fatale makeup images, it shows femme fatale makeup images which have more confidence, leadership and strength recently.

Through this research and the makeup is given the pole figures of social change,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notice that must be applied. Not covered here but in future research, wave ride makeup techniques.